

# 전화 불통 유학생·여행객 가족 ‘발동동’

## 광주·전남북도 ‘日 지진·쓰나미’ 쇼크 ... 생사 확인 못해 뉴스에 촉각

11일 사상 최대 규모의 강진과 쓰나미가 일본 동북부를 중심으로 한 연안 지역을 강타하면서, 일본에 유학이나 여행을 간 가족과 지인이 있는 광주·전남·북 지역민들은 큰 충격과 함께 안부를 확인하느라 노심초사했다.

강진 이후 여진과 쓰나미가 계속되고 피해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후쿠오카와 오사카 등 일본 남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도시와 통신이 두절돼 안부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형 쓰나미로 인해 400만 가구가 정전됐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가장 많은 한국인이 거주하는 도쿄 신주쿠 쇼쿠안도리 일대도 한국인들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고 있으나 11일 밤 늦게까지 전하는 물론, 통신이 연결되지 않았다. 또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국제전화 통화량이 평소보다 100배 가량 폭증하기도 했다.

2년 전 일본에 유학을 다녀온 윤모(여·42)씨는 “도쿄 일대에 지진이 많이 뉴스를 들은 직후 바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하나같이 연결이 되지 않았다”며 걱정했다.

도쿄에 동생이 거주하고 있다는 선모(30)씨도 “쓰나미 물결이 육지를 뒤덮는 뉴스를 보자마자 동생이 걱정돼 전화를 했지만 계속 ‘통화중’ 상황”이었다며 “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마저 통화불능 상태였다”라고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지난 2002년 광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미야기현 센다이시(仙台)는 진앙과 가까워 공황이 쓰나미에 침수되는 등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시는 센다이시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 3대가 모두 불통이었다.



충격과 불안

일본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강진과 해일이 발생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동구 금남로 거리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쓰나미가 센다이시를 덮치는 장면을 시청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센다이시가 물에 잠기는 모습이 TV를 통해 계속 방영되자 인근 지역에 가족과 지인을 둔 시민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아들이 센다이시 도호쿠대학에 유학중인 이모(58)씨는 “센다이시가 피해가 크다는 말에 아들에게 수 십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통화 자체가 안됐다”며 극도로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 국내 대형 여행사에도 일본여행객 가족들과 여행 예정이었던 시민들의 문의전화들이 쇄도했다.

한 대형여행사에 따르면 지진이 발생한 이날 오전 수백명의 여행객이 일본으로 출국했으며, 3일 전부터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관광객들도 모두 300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미 도쿄 하네다공항 등이 폐쇄된데다 연락이 여의치 않아 상황 자체가 안됐다”며 극도로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피해 지역 대부분의 통신이 두절되자 이날 오후 네티즌들은

트위터 등 SNS(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 자신들이 파악한 현지 사정을 발 빠르게 전파하는 등 정보를 교환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트위터 ID 'inuchi9202'는 “도쿄 오다이바 지역에 있는 후배가 다행히 자신은 무사하다고 전해왔다”며 오다이바 인근에 지진이 있는 사람들은 안심하세요”라고 전했다. 또 ID 'hyukil'은 “도쿄 디즈니랜드가 물에 잠겼다는 뉴스는 과장”이라며 “주차장 일부가 침수됐을 뿐”이라고 현지 소식을 알렸다.

전남도 오사카 통상사무소의 노일환 소장은 지진 발생 후 광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오후 3시30분께 갑자기 건물에 3분여 가량 흔들리기 시작했다”며 “남부에 위치해다 태평양 연안과 반대쪽이라 아직 피해는 없지만 다른 지역 피해가 워낙 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지진은 11일 오후 2시45분께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에서 8.8 규모로 발생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양수현기자 yangsu@kwangju.co.kr

# “벼룩의 간을...”

### 정읍경찰, 기초생활수급 3천만원 빼돌린 공무원 입건

정읍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수천만원의 생계비를 가로챈 20대 복지도우미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은 11일 정읍 모 면사무소 계약직 복지도우미 김모(여·27)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9월 초께 기초생활수급

자인 이모(18)군 가족을 찾아가 “통장을 관리해 주겠다”고 속여 통장과 도장을 건넨 뒤 생계비 300만원을 인출하는 등 최근까지 83회에 걸쳐 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며 빼돌린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성기자 parkks@

# 곡성 공사장 붕괴 인부 3명 매몰

### 1명 사망 2명 부상

11일 오후 2시30분께 곡성군 삼기면 단층 주택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지붕이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김모(75)씨 등 인부 3명이 매몰됐다. 사고 발생 1시간여만에 인부들은 모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김

씨는 숨지고, 최모(48)씨 등 2명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사 중 갑자기 지붕이 붕괴되면서 인부들이 깔렸다”는 현장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 ‘선거법 위반’ 오현섭 2심서 감형

### 징역 3년→2년 6개월로

### 뇌물수수는 항소심 진행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11일 지난해 6·2지방선거 출마에 앞서 선거관계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006년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4억원을 받은 혐의(특기법 상 뇌물) 등으로 1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또 오 전 시장에게 현금 6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금품선거를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 오 전 시장이 뿌린 금품만 놓고보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가벼이라 원심의 형량이 오히려 가볍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벌도 집행중인 뇌물사건의 1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며, 금품살포 대상에 친인척 등 내부인이 포함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민주당 여수를 지역위원회에 7000만원을 제공하고, 지역구 사·도의원 후보자 10명과 선거조직원 4명에게 격려금 명목의 자금 총 2억7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정신대 할머니 돕기 ‘10만 희망 릴레이’ 모금 운동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결성 2주년을 맞아 본격적인 10만 희망릴레이 모금활동을 시작한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무각사에서 ‘희원의 날’ 행사를 열고 ‘보물섬 시민장터’ 참여 및 10만 희망 릴레이 모금운동을 펼친다. 이날 개인당 1000원씩 모금된 기금

은 미쓰비시와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후원 계좌 ▲광주은행 146-121-844142 (김하영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국민은행 793301-01-512245 ▲농협 302-0306-1997-81 ▲신한은행 110-319-547640 ▲우체국 504126-02-087988 ▲문의전화 062-365-0815. /양수현기자 yang@

# 선재성 판사실·변호사실 법원, 압수수색 영장기각

### 검찰, 재청구 방침

광주지방법원의 법정관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지방법원 선재성 전 수석부장판사와 선 판사의 고고 동창인 강모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11일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전남 검찰이 청구한 선 판사와 강 변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구

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검찰은 조만간 선 판사와 강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 부장판사와 강 변호사가 법정관리 기업 관리 과정에서 유착했다는 진정서를 접수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진정서를 통해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을 해소하려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선 판사는 최근까지 광주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로 기업 파산 업무를 전담하면서 친형, 고고 동문, 퇴임한 운전기사 등 측근을 법정 관리 기업의 관리인 또는 감사로 앉힌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고, 지난 7일 대법원이 선 판사를 광주고법으로 전보(사법연수원 파견) 조치하고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6시 48분    달돋이 10시 38분  
해질미 18시 37분    달질미 0시 38분

**포근한 주말**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다.

|     |         |        |
|-----|---------|--------|
| 광주  | 구름조금    | 3/16℃  |
| 목포  | 구름점차적어짐 | 5/14℃  |
| 여수  | 구름조금    | 5/13℃  |
| 나주  | 구름조금    | 1/18℃  |
| 완도  | 구름조금    | 4/15℃  |
| 구례  | 구름조금    | 0/16℃  |
| 예남  | 구름점차적어짐 | 0/15℃  |
| 장흥  | 구름조금    | 0/15℃  |
| 순천  | 구름조금    | 2/15℃  |
| 영광  | 구름조금    | 2/14℃  |
| 진도  | 구름점차적어짐 | 2/15℃  |
| 전주  | 구름조금    | 3/16℃  |
| 군산  | 구름조금    | 2/14℃  |
| 남원  | 구름조금    | -2/16℃ |
| 옥산도 | 구름점차적어짐 | 5/13℃  |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           |      |          |    |   |   |
|-----------|------|----------|----|---|---|
| 서해 남부 앞바다 | 남~남서 | 0.5~1.0m | ☀️ | 🍖 | 🏠 |
| 면바다       | 남~남서 | 0.5~1.5m |    |   |   |
| 남해 서부 앞바다 | 남서~서 | 0.5~1.0m | ☀️ | 🍖 | 🏠 |
| 면바다       | 남~남서 | 1.0~1.5m |    |   |   |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           |      |          |    |       |       |
|-----------|------|----------|----|-------|-------|
| 서해 남부 앞바다 | 남~남서 | 0.5~1.0m | 목포 | 06:29 | 11:43 |
| 면바다       | 남~남서 | 0.5~1.5m |    | 18:20 | 23:49 |
| 남해 서부 앞바다 | 남~남서 | 0.5~1.0m | 여수 | 01:04 | 06:56 |
| 면바다       | 남~남서 | 1.0~1.5m |    | 12:32 | 19:10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       |       |       |       |       |       |
|-------|-------|-------|-------|-------|-------|-------|
| 날짜    | 13(일) | 14(월) | 15(화) | 16(수) | 17(목) | 18(금) |
| 날씨    | ☀️    | ☁️    | ☀️    | ☀️    | ☀️    | ☀️    |
| 최저/최고 | 4/18  | 7/12  | 3/7   | 0/6   | -1/7  | -1/9  |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11일 오후 광주시 서구 화정동 서초등학교 학생들이 학생회장과 부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전남 동부권~수도·충청권 시외버스 요금 인하

### 전주~광양 고속도로 개통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전남 동부권에서 수도권과 충청권을 운행하는 버스 요금이 11일부터 지역에 따라 최고 6200원에서 최저 3000원까지 인하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여수시 등 전남 동부권과 수도권·충청권을 운행하는 직행형 시외버스 운행 경로가 변경되고 요금이 낮아졌다. 운행 경로가 변경된 직행형 시외버

스는 여수에서 서울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을 포함해 총 9개 노선이다.

여수에서 서울 구간이 최장 70.8km, 동광양에서 대전 구간이 최소 16.7km가 단축됐고 운행시간은 최고 50분에 최저 15분 정도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요금은 동광양에서 대전까지는 기존 2만4000원에서 1만4200원으로, 동광양에서 인천공항까지는 2만8900원에서 2만3000원으로, 여수에서 서울까지는 2만8000원에서 2만4500원으로 모두 각각 변경됐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5급 승진 미끼 5천만원 '꿀꺽'

### 목포지청 40대 구속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1일 승진을 미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A(42·건설업)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6 신안군 보림 선거 당시 모 군수 후보 수선행비서로 활동했던 A씨는 2007년 2월 6일 공무원 N씨에게 “5급 승진을 청탁해 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A씨가 돈을 받아 개인적인 사업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 말다툼 양심 상대방 차 타이어 퍼크



말다툼 양심 상대방 차 타이어 퍼크

말다툼 끝에 양심을 품고 상대방의 승용차 타이어에 퍼크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서행.

말다툼 끝에 양심을 품고 상대방의 승용차 타이어에 퍼크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서행. ○1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57)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5시에 광주시 북구 우암동 한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이모(68)씨의 승용차 타이어에 퍼크를 내는 등 최근까지 두 차례에 걸쳐 4개의 타이어(시가 49만원 상당)에 퍼크를 냈다는 것.

경찰은 A씨가 돈을 받아 개인적인 사업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작가 사정으로 오늘 만화·만평 없습니다.